KISTEP 브리프 76

통계분석

2023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한혁







[요약]

○ 2023년 IMD 세계경쟁력 순위는 북유럽국가인 덴마크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순

• IMD는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안보 등으로 야기되는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탄력적인 공급망 및 유리한 무역 균형을 갖춘 국가·지역이 경쟁력 유지 및 개선이 가능했던 반면,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순위가 감소하였다고 평가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28위

- 경제 성과 부문에서 전년 대비 8단계 순위 상승(22위→14위)하였으며, 정부 효율 부문에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36위→38위), 기업 효율 부문(33위)과 인프라 부문(16위)은 전년과 동일 순위
- 20개 세부 항목 중에서는 과학 인프라가 2위, 고용이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반해 기업 관련 법규가 53위, 국제 무역이 42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 20개 세부 항목 중 전년 대비 변화율이 가장 큰 항목은 금융으로 13단계 하락('22년 23위→'23년 36위) 하였으며, 뒤이어 국제 무역이 12단계 하락('22년 30위→'23년 42위)

과학 인프라 항목은 1단계 상승한 2위를, 기술 인프라는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

- 과학 인프라는 R&D투자, 인력, 특허, 첨단기술산업 등 노벨상 관련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량지표가 10위권 수준으로 기존의 강점이 유지되고 있으나, 설문조사 지표 순위*는 30위 안팎의 낮은 순위
 - * 과학 인프라의 총 22개 지표 중 3개가 설문지표로, 3개 설문지표는 전년도에 순위가 하락한 반면 올해는 모두 상승
- 기술 인프라는 총 17개 세부 지표 중 전년 대비 11개 지표가 하락하여 4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크게 하락한 지표는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22년 대비 8단계 하락)
- 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 모두 10위권 안팎의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30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공존하여 지표가 양극화되어 있음
 - * 과학 인프라의 경우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적 재산권의 보호 정도, 산학간의 지식 전달 정도와 같이 제도/환경 관련 항목들이 낮은 순위이며, 기술 인프라는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보안 인터넷 서버수, 디지털 기술의 사용 용이성,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가 낮은 순위임

목 차

☑ 1. 개요····································
☑ 2. 국가 경쟁력 순위
☑ 3. 과학 인프라 순위
3 4. 기술 인프라 순위

1. 개요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1989년부터 매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하고 있음
 - IMD는 국가 경쟁력을 기업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응 능력으로 바라보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효율적인 인프라, 제도, 정책 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
 -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단순히 GDP나 생산력으로 규정짓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관리 능력'으로 인식하고 순위를 부여
 - 2023년에는 6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과, 정부 효율, 기업 효율, 인프라의 4개 부문을 336개 지표*로 평가 * 336개 지표 중 256개 지표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164개 정량지표와 92개 정성지표로 구성



자료) IMD,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재구성

[그림 1] 국가 경쟁력 지표 체계



자료) IMD,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재구성

[그림 2] 국가 경쟁력 순위 결정 방법

◎ 이번 호는 IMD가 2023년 6월에 발표한 IMD 세계경쟁력 순위 중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 관련 부문(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에 대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췌

2. 국가경쟁력 순위

○ 2023년 IMD 국가경쟁력 종합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

- 전년도 1위였던 덴마크가 다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일랜드가 2위, 스위스가 3위, 싱가포르가 4위
- 아일랜드는 2011년 24위, 2020년 12위, 2023년에는 2위를 기록하여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경제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
- IMD는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안보 등으로 야기되는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탄력적인 공급망 및 유리한 무역 균형을 갖춘 국가·지역은 경쟁력유지 및 개선이 가능했던 반면,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순위가 감소하였다고 평가

3위 4위 5위 6위 10위 한국순위 연도 1위 2위 7위 8위 9위 이랍 에미리트 2023년 덴미크 이일랜드 ᄵ 상으로 네덜드 셾덴 마국 대만 察 28위 2022년 덴미크 ᄵ 셼땓 셾덴 네달만 때만 팬드 노래이 마국 27위 認 이랍 2021년 ᄵ 싀웨덴 덴미크 네덜란드 셼땓 노래이 대만 먜 23위 察 에미리트 이라 2020년 솋땓 덴미크 ᄵ 네달만 홍 셺덴 노래이 캐니다 먜 23위 에미리트 이랍 네덜란드 이일랜드 셨 덴미크 싀웨덴 兆已 2019년 솋땓 察 마국 28위 에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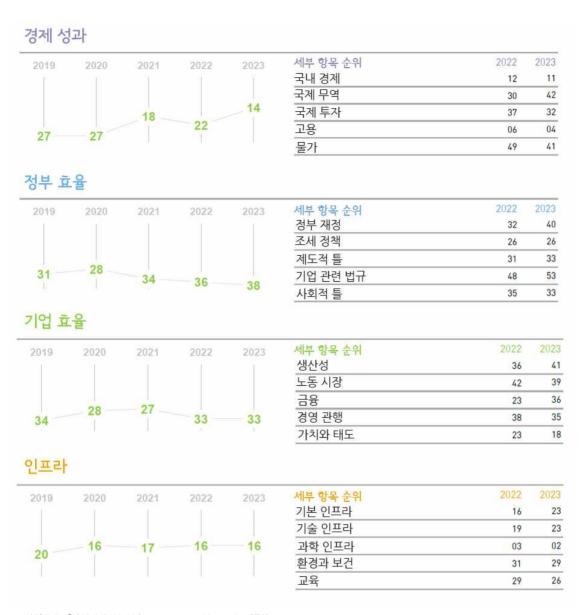
[표 1] 연도별 국가경쟁력 상위 10개국 추이(2018-2023)

자료) IMD,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재구성

○ 한국은 전체 국가 중 28위, 14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7위, 27개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9위

※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순위: 9위('19년) → 7위('20년) → 7위('21년) → 6위('22년) → 7위('23년)
 ※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순위: 11위('19년) → 8위('20년) → 8위('21년) → 9위('22년) → 9위('23년)

- 경제 성과 부문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무역 항목(↓12)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8), 국제 투자(↑5), 고용(↑2) 항목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8단계 상승(22위→14위)
- 정부 효율 부문은 정부 재정(↓8), 기업 관련 법규(↓5), 제도적 틀(↓2)의 정부 효율 부문 항목 대부분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2단계 하락(36위→38위)
- 기업 효율 부문은 가치와 태도 부문(↑5), 노동 시장(↑3), 경영 관행(↑3) 항목에 대한 개선과 금융(↓13), 생산성과 효율성(↓5) 항목의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과 동일 순위 유지(33위)
- 인프라 부문은 교육(↑3), 환경과 보건(↑2) 항목에 대한 개선과 기본 인프라(↓7), 기술 인프라(↓4) 항목의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과 동일 순위 유지(16위)



자료) IMD,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재구성

[그림 3] 우리나라 4대 부문 및 세부 항목 순위 추이

3. 과학 인프라 순위

○ 2023년 과학 인프라 항목 1위는 전년과 동일한 미국이며 한국, 독일, 스위스, 대만 순

- 전체 지표는 22개*이며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18개
 - * 정량지표 15개, 설문지표 3개, 보조지표 4개
- 상위 10위권 국가들이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국가이며, 2022년 14위를 차지했던 영국이 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9위에 위치
- 아시아 국가 중 한국, 대만, 일본, 중국 4개국이 10위권이며 싱가포르가 17위(↓1), 홍콩 24위(↓1), 인도 27위(↓1)

(# 2) IND 44 E-4 811 40 II E II						
국가	2022년 순위	2023년 순위	국가	2022년 순위	2023년 순위	
미국	1	1	이탈리아	20	21	
한국	3	2	호주	22	22	
독일	2	3	체코	24	23	
스위스	4	4	홍콩	23	24	
대만	6	5	스페인	25	25	
이스라엘	5	6	뉴질랜드	27	26	
스웨덴	7	7	인도	26	27	
일본	8	8	포르투갈	28	28	
영국	14	9	아이슬란드	34	29	
 중국	9	10	룩셈부르크	31	30	
네덜란드	11	11	말레이시아	32	31	
덴마크	10	12	슬로베니아	33	32	
핀란드	12	13	폴란드	36	33	
벨기에	17	14	헝가리	29	34	
프랑스	15	15	아랍에미리트	35	35	
오스트리아	13	16	브라질	42	36	
싱가포르	16	17	사우디아라비아	30	37	
캐나다	19	18	터키	37	38	
노르웨이	18	19	태국	38	39	
아일랜드	21	20	그리스	39	40	

〈표 2〉IMD 과학 인프라 상위 40개국 순위

자료) IMD, 「202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와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각각 발췌하여 정리

○ 한국의 과학 인프라 순위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2위로 국가 경쟁력 20개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

- 노벨상 수상 지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적 지표*가 10위권 수준의 강점지표인 반면, 설문지표는 모두 30위 안팎의 약점지표로 지표의 양극화가 뚜렷함
 - * 인구 천 명당 R&D연구자 수 1위, GDP 대비 총연구개발 투자비 및 기업연구개발비 비중 2위,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2위 등

전년 대비 지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총 22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표는 5개

• 순위가 상승한 6개 지표* 중 지적 재산권의 보호정도,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의 설문지표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

- *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 과학기술분야 졸업자 수,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권리유효 특허건수, 중간-첨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지적 재산권의 보호정도,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
- 순위가 하락한 5개 지표 중 노벨상 수상, 인구 백만 명당 노벨상 수상 항목은 대상 국가가 한 개 증가하여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총 연구개발 인력 항목의 경우 2022년에 조사되지 않았던 미국이 포함되면서 순위가 하락

⟨표 3⟩ 우리나라 과학 인프라 지표 현황

\ 11 0/ 1-1	(표 5) 무리되다 되고 한국						
78	순	:위	스이버크				
구분	TE			순위변화			
과학인프라		3	2	†1			
총 연구개발투자	정량	5	5	-			
GDP 대비 총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정량	2	2	_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	보조*	9	8	† 1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정량	5	5	-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정량	2	2	_			
총 연구개발 인력	정량	5	6	↓1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정량	3	4	↓1			
기업 총 연구개발 인력	보조*	5	5	-			
인구 천 명당 기업 연구개발 인력	보조*	3	3	-			
인구 천 명당 R&D연구자 수	정량	1	1	-			
괴학기술분야 졸업자 수	정량	11	9	†2			
과학분야 논문 수	정량	8	8	_			
노벨상 수상	보조*	28	29	↓1			
인구 백만 명당 노벨상 수상	정량	28	29	↓1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정량	4	4	-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정량	2	2	_			
출원인 국적별 특허 등록 수	정량	4	4	_			
인구 10만 명당 출원인 국적별 권리유효 특허건수	정량	4	3	†1			
중간-첨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정량	5	4	†1			
괴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31	32	↓1			
지적 재산권의 보호 정도	설문	37	28	† 9			
산학간의 지식 전달 정도	설문	30	26	† 4			

자료) IMD, 「202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와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각각 발췌하여 정리

^{*} 보조지표(Background information)는 실제 부문별 순위평가에는 사용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

4. 기술 인프라 순위

○ 2023년의 기술 인프라 항목 1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하였고, 덴마크, 싱가포르, 핀란드, 홍콩 순

- 지표수는 정량지표 10개와 설문지표 7개로 구성된 총 17개 ※ 보조지표 없음
- 전년대비 10위권 국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순위가 다소 변동되었지만 유사하며, 중국이 전년도 12위에서 2023년 9위로 상승
- 아시아 국가들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이 10위권, 한국이 23위, 태국이 25위, 전년도 42위이던 일본이 9단계 상승하여 33위, 인도는 38위

(표 4) IMD 기술 인프라 상위 40개국 순위							
국가	2022년 순위	2023년 순위	국가	2022년 순위	2023년 순위		
네덜란드	4	1	바레인	21	21		
덴마크	3	2	스페인	17	22		
싱가포르	1	3	한국	19	23		
핀란드	2	4	리투아니아	24	24		
홍콩	7	5	태국	34	25		
아이슬란드	8	6	노르웨이	13	26		
스위스	6	7	에스토니아	31	27		
대만	9	8	카타르	28	28		
중국	12	9	영국	18	29		
이스라엘	10	10	칠레	38	30		
스웨덴	5	11	오스트리아	26	31		
미국	11	12	호주	29	32		
벨기에	23	13	일본	42	33		
아일랜드	27	14	포르투갈	37	34		
프랑스	15	15	인도네시아	49	35		
말레이시아	20	16	독일	33	36		
체코	32	17	루마니아	39	37		
캐나다	14	18	인도	22	38		
사우디아라비아	30	19	뉴질랜드	46	39		

〈표 4〉IMD 기술 인프라 상위 40개국 순위

자료) IMD, 「202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와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각각 발췌하여 정리

○ 우리나라의 2023년 기술 인프라 부문 순위는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한 23위

16

※ ('19년) 22위 → ('20년) 13위 → ('21년) 17위 → ('22년) 19위 → ('23년) 23위

20

• 전년 대비 총 17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하락하여 지표 대부분이 하락하였으며, 4개 지표*가 상승

라트비아

- *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인구 천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 가장 크게 하락한 지표는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으로 전년 대비 8단계 하락하였으며,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였던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이 전년 대비 6단계 하락함
 - ※ 기술개발자금 충분성 순위 추이: (19년) 42위 → (20년) 38위 → (21년) 34위 → (22년) 30위 → (23년) 36위

아랍에미리트

- 기술 인프라 항목의 세부 지표 순위는 10위권 안팎의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40위 이하의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공존하여 지표가 양극화되어 있음
 - *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4G& 5G 기준),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 **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보안 인터넷 서버 수, 디지털 기술의 사용 용이성,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표 5⟩ 우리나라 기술 인프라 지표 현황

76	순	A OUMEI		
구분		2022년	2023년	순위변화
기술인프라		19	23	↓4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	정량	15	23	↓8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4G& 5G 기준)	정량	11	12	↓1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정량	54	56	↓2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설문	12	11	† 1
보안 인터넷 서버 수	정량	43	43	-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정량	8	9	↓1
 인구 천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정량	25	24	† 1
	정량	12	15	† 3
디지털 기술의 사용 용이성	설문	46	48	↓2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설문	42	47	↓5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46	40	† 6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48	52	↓4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설문	30	36	↓6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정량	5	6	↓1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정량	6	6	_
서비스 수출액 중 ICT 서비스의 비중	정량	35	37	↓2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설문	28	24	† 4

자료) IMD, 「202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와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각각 발췌하여 정리

[통계표]

(표 6) 국가 경쟁력 순위(2019년~2023년)

(표 0/ 국가 88국 문제(2019년 2020년)											
국가명	'19	'20	'21	'22	'23	국가명	'19	'20	'21	'22	'23
덴마크	8	2	3	1	1	인도네시아	32	40	37	44	34
아일랜드	7	12	13	11	2	일본	30	34	31	34	35
스위스	4	3	1	2	3	스페인	36	36	39	36	36
싱가포르	1	1	5	3	4	카자흐스탄	34	42	35	43	37
네덜란드	6	4	4	6	5	쿠웨이트	_	_	_	-	38
대만	16	11	8	7	6	포르투갈	39	37	36	42	39
홍콩	2	5	7	5	7	인도	43	43	43	37	40
스웨덴	9	6	2	4	8	이탈리아	44	44	41	41	41
미국	3	10	10	10	9	슬로베니아	37	35	40	38	42
아랍에미리트	5	9	9	12	10	폴란드	38	39	47	50	43
핀란드	15	13	11	8	11	칠레	42	38	44	45	44
카타르	10	14	17	18	12	사이프러스	41	30	33	40	45
벨기에	27	25	24	21	13	헝가리	47	47	42	39	46
노르웨이	11	7	6	9	14	터키	51	46	51	52	47
캐나다	13	8	14	14	15	루마니아	49	51	48	51	48
아이슬란드	20	21	21	16	16	그리스	58	49	46	47	49
사우디아라비아	26	24	32	24	17	크로아티아	60	60	59	46	50
체코	33	33	34	26	18	라트비아	40	41	38	35	51
호주	18	18	22	19	19	필리핀	46	45	52	48	52
룩셈부르크	12	15	12	13	20	슬로바키아	53	57	50	49	53
중국	14	20	16	17	21	요르단	57	58	49	56	54
독일	17	17	15	15	22	페루	55	52	58	54	55
이스라엘	24	26	27	25	23	멕시코	50	53	55	55	56
오스트리아	19	16	19	20	24	불가리아	48	48	53	53	57
바레인	-	-	-	30	25	콜롬비아	52	54	56	57	58
에스토니아	35	28	26	22	26	보츠와나	-	-	61	58	59
말레이시아	22	27	25	32	27	브라질	59	56	57	59	60
한국	28	23	23	27	28	남아프리카	56	59	62	60	61
영국	23	19	18	23	29	몽골	62	61	60	61	62
태국	25	29	28	33	30	아르헨티나	61	62	63	62	63
뉴질랜드	21	22	20	31	31	베네수엘라	63	63	64	63	64
리투아니아	29	31	30	29	32	러시아	45	50	45	_	_
프랑스	31	32	29	28	33	우크라이나	54	55	54	_	_

|저자소개|

한혁 부연구위원

정책학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E-mail: h2hyuk@kistep.re.kr 전화: 043-750-2602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57 (23.01.06.)	MZ세대를 위한 미래 기술	지수영·안지현 (KISTEP)	미래예측
– (23.01.20.)	KISTEP Think 2023, 10대 괴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최대승 (KISTEP)	이슈페이퍼 (제341호)
58 (23.02.02.)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3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다은·김유신 (KISTEP)	혁신정책
59 (23.02.07.)	미국의「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	이민정 (KISTEP)	혁신정책
– (23.02.21.)	'데이터 보안'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박창현·임현 (KISTEP)	이슈페이퍼 (제342호)
60 (23.03.06.)	연구자산 보호 관련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사사점	유지은·김보경 (KISTEP)	혁신정책
61 (23.03.20.)	美,「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동덕 (KISTEP)	혁신정책
_ (23.03.29.)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방안	홍미영·김주원 안지현·김종란 (KISTEP)	이슈페이퍼 (제343호)
62 (23.03.30.)	2021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한혁 (KISTEP)	통계분석
63 (23.03.30.)	2021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강유진·김종란 (KISTEP)	통계분석
– (23.04.03.)	국방연구개발 예산 체계 진단과 제언	임승혁·안광수 (KISTEP)	이슈페이퍼 (제344호)
64 (23.04.06.)	2023년 중국 양화의 주요 내용 및 과학기술외교 시사점	강진원·장지원 (KISTEP)	혁신정책
65 (23.04.10.)	2023 인공자능 반도체	채명식·이호윤 (KISTEP)	기술동향
66 (23.04.13.)	생성형 AI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시시점	고윤미·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	STI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방안	변순천 외	이슈페이퍼
(23.04.17.)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KISTEP)	(제345호)
67	「OECD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Outlook	홍세호·심정민	혁신정책
(23.04.17.)	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TEP)	
–	임무지형형 시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제언	박노언·기지훈·김현오	이슈페이퍼
(23.04.19.)		(KISTEP)	(제346호)
68 (23.05.02.)	전/차 배터리 핵심핑물	이승필·여준석·조유진 (KISTEP)	기술동향
–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구본진	이슈페이퍼
(23.05.03.)	: 국가전략기술 연구기발 기업을 중심으로	(KISTEP)	(제347호)
69	해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OECD 원칙 및 과학기술	배용국·정미나	혁신정책
(23.05.04.)	사사점	(KISTEP)	
70 (23.06.08.)	OECD MSTI 2023-March의 주요 결과	정유진 (KISTEP)	통계분석
71 (23.06.09.)	2022년 지역 과학기술학신 역당평가	한혁·안지혜 (KISTEP)	통계분석
72 (23.06.23.)	일본, 『사이언스 맵 2020』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사사점	이미화·심정민 (KISTEP)	혁신정책
–	국가연구가발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 제언	김행미	이슈페이퍼
(23.06.27.)		(KISTEP)	(제348호)
–	신입과학기술인 작무역량에 대한 작장상사-신입간 인식	박수빈	이슈페이퍼
(23.06.28.)	비교 분석	(KISTEP)	(제349호)
73 (23.06.30.)	2021년도 국가연구배사업 내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한혁 (KISTEP)	통계분석
74 (23.07.03.)	2022년 국가 괴학기술학신역량 분석	김선경·한혁 (KISTEP)	통계분석
– (23.07.05.)	기술패건경쟁시대 한국 과학기술외교 대응 방향	강진원·김진하 (KISTEP), 이정태(KIST)	이슈페이퍼 (제350호)
–	학문분이별 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제언	안지현·윤성용·함선영	이슈페이퍼
(23.07.06.)	(국내외 지원현황의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KISTEP)	(제351호)
75	美 2023 국방과학기술전략서(NDSTS)의	유나리·최충현·임승혁·	혁신정책
(23.07.14.)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민규(KISTEP)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76 (23.07.27.)	2023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한혁 (KISTEP)	통계분석